

제주 여행상품 취소율 90%...관광업계 속수무책

‘무비자입국’ 중단...제주 지역경제 ‘휘청’

中 인근 홍콩·마카오 이어 동남아도 취소 붐몰

여행·레저 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가능성조차 어려워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잠정 중단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고 국내 관광객들도 여행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제주도에 따른 것이 확인되면서 면세점도 휴업에 들어가는 등 곳곳에 약자들만 가득한 상황이다.

김형우 디스커버 제주 대표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제주여행 관련 상품의 예약 취소율은 90%를 넘어서었다”며 “렌터카

업체의 경우 99%가 취소됐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경제가 힘들것 같다”며 “소상공인들이나 벤처 기업들은 숨만 쉬어도 임대료와 건강보험료,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번 위기를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투로했다.

제주 한 리조트업체 관계자도 “취소율 수치는 방침상 공개할 수 없지만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내일(4일)부터 제주도 무사중제도(무비자 입국)가 중단되고 하니 당분간 어려움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업체들도 이미 정부 조치 이전부터 악화일로에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A여행사 관계자는 “우한폐렴이

라는 이슈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중국은 차차하더라도 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행 예약 자체가 거의 모두 취소되고 있어 더 심각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등 인접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태국이나 괌, 사이판 등도(상당수 취소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부정적 이슈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여행 불안증으로 번져가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여행·숙박업체들은 타격을 보전할 정부의 지원조차 바랄 수 없는 처지라며 조속한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하나같이 주문했다.

B여행사는 “제주 인바운드(해외 이용객의 국내 관광을 유치하는) 업체는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웃바운드(국내 이용객의 해외 관광 유치)쪽은 해주면 좋지만 우선은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만을



정부는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확대회의에서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바랄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조치에 대해 “이미 소비자들은 먼저 움직이고 저희도 이미 설 연휴 전 중국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했는데, 정부는 ‘뒷북’을 치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가 우왕

좌왕 하고 있는데 저희나 항공사 등 관련 업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선 메르스 사태 당시 관광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소 3000만원씩 지원했다.

김형우 디스커버 대표는 이에 대해 “좋은 사례이지만 제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와 늘 독자적인 정책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즈니스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들은 서울·제주지역 모두 아직은 ‘큰 이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역시나 타격 사정권 안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현재까지 호텔쪽은 큰 영향이 없다. (거기까지 여과가 미치면) 정말 큰 일”이라면서도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빨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뉴스1

‘새로운 도전’ 성공한 삼성폰, ‘타협한’ LG폰...명암 갈린 2019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달 30일 2019년 4분기 스마트폰 사업부의 실적을 공시하면서 지난해 성적이 모두 공개됐다.

양사 모두 지난해 최초 상용화된 ‘5G(5세대) 스마트폰’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킬러 스마트폰’의 차이였다.

◇삼성전자, 지난해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 출시로 호평

삼성전자 IM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은 107조2700억원, 영업이익

은 9조2700억원이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조1700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9000억원 가량 줄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이 과거만큼 나오지 않은 탓에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이 멈춘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최초의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를 출시했다. 최초 공개 이후 접는 부위인 ‘힌지’(경첩) 결함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해 출시한 갤럭시 폴드는 239만8000원이라는 높은 출고가에도 ‘완판’ 행진을 벌였

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반응도 호평이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상징인 애플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기능과 높은 완성도에 시장은 환호했다.

폴더블 폰 외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최초 5G 지원 △전면 디스플레이 베젤을 최소화 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내장형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탑재하며 경쟁업체들과 차별점을 뒀다.

또 이와 같은 기술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난해 새로 주력한 중저가 라인업에도 도입되며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그 결과 ‘갤럭시A50·A70’은 유럽·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됐고, 삼성전자의 매출을 견인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ODM 확대·생산라인 이전 등에 주력...‘듀얼 스크린’ 폰 성과도 신통치 않아

LG전자에서 모바일 사업을 맡고 있는 MCI사업부의 2019년 총매출은 5조9668억원, 영업손실은 1조999억원에 기록했다. 직전 연도에 비해 총매출은 33.7% 줄고, 영업손실 폭은 16.9% 확대됐다. 5년째 적자다.

LG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4월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 때 “경기도 평택의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며 “3분기까지 공장 이전 및 양산 안정화를 진행하면 4분기부터는 수익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주력생산방식(ODM)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3분기 영업손실이 직전분기 대비 절반 수준인 1612억원으로 ‘반짝’ 줄기도 했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겨우 두 분기만인 4분기에 영업손실이 332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LG전자의 ‘듀얼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갖춘 첫번째 5G 스마트폰 V50쌍유를 시장에 내놔 좋은 초기 반응을 얻었지만, 다음 모델로 내놓은 V50S쌍유가 ‘마이너 업그레이드’라는 원성을 받고 3분의 1 수준의 판매고로 ‘참패’를 겪었다.

고 있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수급이 어렵지 않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치 재고분을 비축해 왔다. 그러나 우한폐렴 여파로 이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제품 공급 자체가 끊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국내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해당 부품을 대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공급되는 물량을 100%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춘제 연휴도 연장하면서 공장 재가동 시점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가동 중단도 대비하고 있다. 노조와 실무협의체를 열고 정상조업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나? ‘알만한 사람만 아는’ ‘이색라면’

“어머, 이걸 뭐지?”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시작한 박모씨(30·여)는 최근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신기한 라면을 접어 들었다. 채소로만 만든 오뚜기 ‘채황라면’이다.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라면이었다.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채황라면을 끓였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박씨는 “모르고 먹으면 채소라면인 줄 모를 것 같다”며 “뭣봉지 더 사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만큼 수백여종의 라면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신라면·안성탕면·육개장사발면·짜파게티처럼 장수하는 라면도 있지만 시대를 앞섰다가 사라지거나 좁은 틈새 시장을 노려 승승장구한 라면도 있다.



◇스님도 먹는다는 ‘야채라면’...며에도 없는 ‘감자면’

시대를 먼저 읽은 걸까. 농심은 7년 전 채식주의자를 겨냥한 ‘야채라면’을 선보이며 ‘비건 라면’의 포문을 열었다. 기름과 육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양파·마늘·생강·청경채·토마토 등 7가지 야채로만 만든 데다 ‘할랄’(halal) 인증까지 받은 덕에 ‘스님도 먹는 라면’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농심 ‘감자면’도 아는 사람은 꾸준히 즐기는 ‘재야의 라면’으로 꼽힌다. 감자면은 진짜 감자를 넣고 두드린 반죽에서 면발을 뽑아냈다. 양파와 소고기로 맛을 낸 국물도 샵브라처럼 개운하다.

특히 감자면은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서 꼭 사가는 라면’으로 유명하다. ‘라면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에도 없는 ‘감자면발’ 때문이다. 급기야는 일본 인기 만화인 ‘메시바나 형사 타치바나’에서 농심 감자면이 등장하기도 한 ‘재야의 고수’에 해당 하는 라면이다.



◇비건 겨냥한 ‘채황’...맛으로 대박 친 ‘쇠고기미역국라면’

오뚜기에서 진라면, 진짬뽕 등 ‘진(眞)’ 계열 라면만 잘나가는 게 아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공략해 ‘대박’을 친 라면도 있다. 오뚜기 ‘쇠고기미역국라면’은 라면으로 미역국 맛을 구현한 최초의 제품이다. 미역국과 짬뽕인 ‘발맛’을 살리기 위해 국내산 쌀가루도 10% 첨가했다.

라면스프도 색다르다. 쇠고기미역국라면 스프에는 양지·우사골·돈사골 등 육수기루와 참기름, 소고기, 미역이 들어갔다. 건더기도 건미역, 참기름에 볶은 미역, 쇠고기 건더기 등 미역국 조리법과 동일하다.



◇시대를 앞서간 ‘마라불닭볶음면’...군인이 사랑한 ‘간짜뽕’

농심 야채라면이 트렌드를 내다본 해안으로 마니아층을 모았다면, 시대를 앞서갔다 외면을 받은 ‘비운의 라면’도 있다.

국내 라면업계의 ‘원조’ 삼양식품이 지난 2017년 7월 출시한 ‘마라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발을 뺐다. 양파와 소고기로 맛을 낸 국물도 샵브라처럼 개운하다.

특히 감자면은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서 꼭 사가는 라면’으로 유명하다. ‘라면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에도 없는 ‘감자면발’ 때문이다. 급기야는 일본 인기 만화인 ‘메시바나 형사 타치바나’에서 농심 감자면이 등장하기도 한 ‘재야의 고수’에 해당 하는 라면이다.



농협유통, 광천하나로기 연중 3,650원 3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이 최자가 PB 상품 ‘광천하나로기’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은 하나가득 광천하나로기(4g·20봉)를 연중 3,650원에 판매한다.

부품 3일치 남았다...국내 완성차 업체 도미노 섰다운 위기

현대차,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량 6일까지...’생산 차질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국내 완성차 업체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서 생산되는 일부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로 인해 국내 생산공장 가동이 멈출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기아차 역시 차량 내 통합 배선장치 ‘와이어링 하니스’의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측은 1주일 가량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아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승용차의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는 오는 6일 대부분 소진될 예정이다. 당장 이날부터 울산1공장 및 5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나와 제네시스 G80의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중단된다. 4일에는 팰리세이드·G70, 5일에는 투싼·GV80·아반떼 등의 재고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 부족으로 지난 주말 일부 공장의 특

근도 취소됐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차량 각 부위에 전력과 신호를 공급하는 역할이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신, 유라코퍼레이션, 티에이치엔(TIHN) 등에서 와이어링 하니스를 공급받

뉴스1